

모두의 창업, 모두의 정보



김승호의
시선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브리핑룸.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브리핑에 앞서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허리를 굽혔다.

같은 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입구. 중기부 장관을 맡으면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장관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을 만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중기부 장·차관이 최근 정보 유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으로 인해 같은 날 모두 국민과 창업자들에게 사과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모두의 창업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이를 실행한 창업진흥원은 안일하고 세심하지 못했다. 여튼으로부터 못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가뜰이나 국민들이 거대 유통 플랫폼

폼인 쿠팡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로 공분하고 이런 분위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그렇다.

특히 사기업도 아닌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이라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위중하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서비스의 신뢰와도 직결된다.

중기부가 모두의 창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업 아이디어 유출이나도 용이었다.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걱정했던 일은 본계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벌어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정보 유출 과정에서 총 9개의 IP(인터넷 프로토콜)가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합격자들의 이메일 주소, 심사평, 아이디어 요약본을 빼간 것으로 파악됐다.

노용석 차관은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암호화된 정보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를 ‘해킹’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해킹은 외부의 소행이 아닌 모두의 창업 프로

젝트에 참여해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AI 솔루션 업체가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중기부는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조사 중인 과정이어서 해킹의 주범을 적시하기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나선 중기부는 1차 선정자 5000명 전원에게 ‘영역비밀 원본증명’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개인 등에 대해서 1년간 무상 기술임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모든 부처 중에서 정책 대상과 스펙트럼이 가장 넓다. 스타트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대한민국 기업수의 99%를 관장한다. 정책의 가짓수가 그만큼 많고 산하 공공기관들은 수 많은 기업의 영업 비밀, 기술 정보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다.

모두의 창업은 중기부 장관을 거쳐 총리로 지명, 25~26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한 장관의 대표적인 지적 중 하나다.

모두의 창업이라고 명명했지만 참가자들의 정보가 ‘모두의 것’일 수는 없다. 더욱 큰 일을 하러가는 한 총리 후보자가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정보 안보’ 해법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bad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6일 (음 5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앞서가지 마세요. **60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쯤반길입니다. **72년생** 구실을 조심하고 거래는중개인을 통하세요. **84년생** 떠난 연인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 49년생** 매우 잘 풀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61년생** 하늘과 땅이 다같이 흰합니다. **73년생** 귀인이 저절로 찾아 옵니다. **85년생** 남도 보고 뺨도 따졌으니 잘 풀려 나가겠습니다.
- 50년생**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62년생**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74년생** 사업을 유지하면서 축소나 확장은 하지 마세요. **86년생** 안좋은 습관은 병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 51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3년생** 반드시 길하게 됩니다. **75년생** 순리에 따르도록 하세요. **87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마세요.
- 52년생**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터지는구나. **64년생** 광고를 열심히 한 만큼 물건은 많이 팔릴 것입니다. **76년생** 한 팔을 거둬들이 이익이 됩니다. **88년생** 도움은 이득을 달고 옵니다.
- 53년생**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65년생** 긴장이 풀려 몸을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7년생** 어려울 듯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89년생** 모든것에서 승승장구합니다.
- 54년생**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66년생** 경가망동 하지마세요. **78년생** 북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길합니다. **90년생** 그동안 준비해 온 어려운 시험에서 좋은 결과로 합격합니다.
- 55년생** 사기 당하기 십상입니다. **67년생** 마음속의 근심은 태산입니다. **79년생** 지갑 조심 돈 조심 불량배를 조심하세요. **91년생**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운입니다.
- 56년생** 시비에 가담지 마세요. **68년생**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80년생** 노력에 공전하고 손실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약속을 지켜라. 불가하면 사전에 양해를 얻어 구실을 차단하세요.
- 57년생** 서쪽에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69년생**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81년생**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93년생** 좋은 소식이 오게 됩니다.
- 58년생** 갈수록 힘들어지지만 합니다. **70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82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94년생** 새로이 시작 하려는 일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 59년생** 가까운 이들이 떠나는구나. 기도하세요. **71년생** 매사에 조심하세요. **83년생** 두번, 세번 확인하세요. **95년생**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마음에 담지 마세요.

K게임은 왜 게임쇼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나



기지수첩
최빛나 (IT부)

하반기 게임업계는 독일 게임스컴, 일본 도쿄게임쇼(TGS), 부산 지스타까지 세계 3대 게임쇼가 이어지는 시즌이다. 신작 공개와 기술 경쟁, 글로벌 시장 전력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무대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분위기가 다르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지스타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임에도 아직 메인 스폰서가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중국 게임사가 메인 스폰서를 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국내 게임축제의 얼굴을 해외 기업이 맡는 상황 자체가 국내 게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해의 게임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게임쇼

컴 참가를 공식화한 국내 게임사는 많지 않고, 지난해 존재감을 드러냈던 도쿄게임쇼 역시 현재까지는 스마일게이트 정도를 제외하면 적극적인 참가 소식이 드물다. 지난해 게임사들이 앞다퉈 신작을 공개하며 경쟁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물론 이유는 있다. 환율 부담과 전시 비용 상승으로 참가 비용은 크게 늘었다. 게임 하나를 알리기 위해 수십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하다.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게임쇼 대신 온라인 쇼케이스나 자체 방송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을 흔들 만한 신작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펠어비스의 붉은사막, 엔씨소프트의 아이온2 같은 기대작이 있음에도 업계 전체 분위기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예전처럼 게임 하나가 산업 전체의 기대감을 높여준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사이 중국 게임사들은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다.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권 상당수를 중국 게임이 차지하고 있고, 국내 게임쇼의 중심까지 넘보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중국 게임인데, 국내 게임사는 보여줄 작품을 고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쇼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다. 산업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무대다. 참가 기업이 줄고, 메인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고, 공개할 신작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산업의 활력에 전 같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올해 게임쇼 시즌이 조용한 이유는 게임쇼의 영향력이 줄어든 게 아니다. 전 세계 이용자들을 전시장으로 불러들일 만큼 강력한 K게임의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 지금 국내 게임업계에 필요한 것은 참가 숫자가 아니라, 다시 시장을 설레게 만들 새로운 성공작이다.

/vitna@



김상회의 四季 재(齋)의 공덕

제사(祭祀)는 신이나 돌아가신 조상의 혼령 등 영적인 존재에게 제물을 바쳐 예를 표하는 의식이다. 요즘은 집에서 제사(祭祀)를 지내는 집이 거의 없다. 혹여 선행부도 기제사를 지내더라도 절에 가서 모시는 경우도 많아졌다. 기독교를 신앙하는 집에서는 예배를 보는 것으로 기제를 대신하며, 천주교에서는 가정 제례집이 있어서 성당에서 제사 미사를 합동으로 올린다. 전통적인 제례는 조선 시대 때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식으로 제례가 전승되어 온 것인데, 보통은 ‘4대봉사’(四代奉祀)를 기준으로 하였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제주)의 4대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낸다. 5대조부터는 사당에서 신위를 모시지 않고 묘소에서 묘사(墓祀)를 지내는데, 지금도 성씨의 종가를 비롯한 종친회가 주관하는 시제(時祭)에서는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제사를 모시곤 한다.

공적이 큰 조상 또한 불천위로 지정되어 세대가 지나도 계속 제사를 지낸다. 사람이 명이 다하여 육신과 정신이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지고 나면 업의 결과물인 식(識)은 알게 모르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혼 또는 영혼이라 불리는 식은 사후에도 같은 DNA를 가진 후손들에게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조상의 DNA나 기파(氣波)가 후손들의 업식에 작용을 한다고 유교에서도 믿었고, 4대 후손까지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기간을 4대까지 한다. 살아서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지은 불선업이 있을 터 사람이 명(命)을 마치고 중음을 떠도는 49일간 생전의 선하고 악한 업을 저울질 받아 육도 윤회(六道輪回)를 한다고 보는 견해는 인도 중국을 비롯한 불교국가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식이다. 여기에서 49제나 천도제가 유래하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8					3	7	4
9	3		1				
7			3		2		9
		4	6		5	1	
	7						4
		9	4		3	7	
	9		2		8		7
				4		9	8
3	8	7					6

문제풀이: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퍼즐 퍼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2	3	4	5	6	7	8	9
8	6	9	7	2	1	5			
2	9	9	8	6	2	1	6	7	
9	2	1	7	8	7	6	9	1	
6	7	8	1	2	6	9	2	9	
6	8	1	9	2	9	7	6	2	
1	6	7	2	9	6	8	9	2	
2	9	9	2	1	8	6	7	6	
7	2	6	9	1	9	2	8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4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4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